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3]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김완일 목사 / 1994

성경공부 인도자의 주된 도구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말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인도자가 연거푸 마른 기침을 하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 딱딱하기만 한 단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장, 반복되는 이야기, 적절하지 못한 예화 등 -을 말해서는 안된다.

효과적인 표현에 대한 일리온 존스(Illion T. Jones)의 주장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어휘 사용

모든 참석자들이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 익숙치 않은 어휘는 쓸데없는 말보다 더 나쁘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들지도 않을뿐더러 문장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게 한다. 성경공부에 나온 사람들은 거창한 말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쉬운 어휘를 사용한다고 언어의 고상함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운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인도자의 열등감과 위선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최소한의 어휘 사용

결코 한 단어로 충분한 곳에 두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허황하고 의미없는 말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가능한 많은 전치사, 부사, 형용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종종 메시지의 효과는 첨가하는 것 못지않게 생략되는 것에 달려 있다. 많은 메시지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잡음만 내는 쓸데없는 말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분 가운데 한두분은 이 예화를 들어 보셨겠습니까만, 다시 반복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지 않는다면 이 주제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없는 소리로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스위치를 끄게 만드는 것들이다.

(3) 인상적인 어휘 사용

구체적인 말은 항상 일반적인 말보다 더욱 인상적이다. 활동성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상적인 명사 보다는 구체적인 명사로, 능동태로 타동사를 사용하고 마음에 그림을 전달할 수 있는 회화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념적이고 신학적인 언어

의 사용은 설득력있는 전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공부 인도자의 말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말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말이라 함은 특정한 사물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연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가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다. (계속)

* 출처 - 온누리신문